

9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

농진청, 필기 12일 · 실기 10월 17일 전주서... 원서접수는 10일부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합격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 5천 원, 실기는 3만 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금고 농협은행 도청지점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1위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지점장 이상우)이 지난 5월 실시한 농협은행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1,121개 농협은행 사무소의 영업점 친구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간 평가했으며 전북도청지점은 전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무소로 선정됐다.

이상우 지점장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정성 있는 고객응대와 업무처리로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고 도금고는 행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이 지난 5월 실시한 농협은행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사진은 전북도청지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 헌혈자의 날 기념

혈액수급 장려운동 추진

사회적기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5일간 혈액수급 장려운동을 추진한다.

LX는 세계헌혈자의 날을 이틀 앞둔 12일까지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 2개 부설기관과 본사 임직원이나서 전사적인 헌혈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공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는 11일 오전부터 헌혈에 참여하기 위한 임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례로 헌혈차량에 탑승해 헌혈에 동참했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혈액수급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주기적인 헌혈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헌혈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헌혈자의 날'은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날로,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1930년 노벨상 수상자인 카를 란트 슈타이너의 탄생을 기념해 매년 6월 14일에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김윤상 기자

농업용 하천수 수질 '이상 무'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2007년 ~ 2019년까지 13년 동안 하천수 수질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하천수는 안전하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중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009년 4월까지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으며, 평균 4.17mg/L로 적정수준(9.0 mg/L) 보다 낮았고, 염류농도(EC)는 평균 0.22mS/m²이었고, 농번기가 끝나는 10월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질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9 mg/L로 적정수준(0.3 mg/L 이하)보다 낮아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익산=정영원 기자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해야"

**중기중앙회, "전통제조 중기 고령화 심화돼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월 50만원까지 상향
60세 이상 직원 고용 중기로 지원대상 확대" 주장**

중기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한 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일부 폐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 △60세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6일,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 등을 확정했다. /김윤상 기자

OECD "한국, 올 성장률 -1.2% 주요국 대비 하락폭 가장 양호"

**韓, 3월 전망치 2.0% 대비 조정폭 -3.2%p 대폭 낮춰
세계 평균 -8.4%p보다는 양호... "코로나 방역 효과적"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4→6.0% 대폭 낮춰 잡아
美 -7.3%, 中 -2.6%, 日 -6.0%, 유로존 -9.1% 등 예상
"전례 없는 위기,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1.2%까지 낮춰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연달아 2차 충격이 가해질 경우 추가 하락도 예상했다.

다만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6.0%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성장률 하락폭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지난 3월 기준) 2.0%에서 3.2%포인트(p) 줄여 -1.2%로 낮췄다.

한국 성장률에 대한 OECD의 전망치는 지난해 9월과 11월 연속해서 2.3%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3월 2.0%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대폭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번 OECD 전망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 연말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까지 염두 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발표했다.

현재 각국의 방역조치가 성공을 거두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했을 경우(1차 타격)와 10월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2차 타격)을 가정했다.

1차 타격으로 끝날 경우 한국의 올해 역성장 규모는 -1.2%로 비교적 크지 않다. 내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차 타격시에는 추가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전망치는 -2.5%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내년에는 1.4%로 저성장 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

로 다른 OECD 국가 대비 올해 경기위축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실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 가능하다고 OECD는 분석했다.

다만 연중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 비교적 낮은 고용보완 보충성을 가지고 있어 가계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실질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OECD는 제안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과 기업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위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 이후 내년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단 올해 성장률 하락폭만을 놓고 봤을 때 충격적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이 없더라도 -6.0%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2.5%)보다 8.0%p나 낮은 수치다. 2차 타격이 있다면 하락폭은 더욱 확대되면서 -7.6%나 후퇴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주요국들의 성장률도 대폭 낮춰 잡았다. 미국은 1차 타격시 -7.3%, 2차 타격시 -8.5%로 내다봤다. 중국 1차 타격시 -2.6%, 2차 타격시 -3.7%, 일본은 1차 타격시 -9.1%, 2차 타격시 -1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예수병원, 폐암과 대장암 적정성 평가 모두 '1등급'

호남권 종합병원 중 '유일'

예수병원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폐암, 대장암 2부분의 적정성 평가에서 호남권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예수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5차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9.21점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예수병원은 이 평가에서 전문인력 구성 여부, 암 관련 전문의의 압박 기록을, 치료 전 병리학적 확진 진단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림프절 절제 또는 림프절 샘플링 시행률, 방사선치료 기록 비율 항목에서

100%를 달성했다.

또한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진료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다. 병원은 종합점수 99.26점으로 종합병원 종합평균 95.99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13개 분야의 지표 중 7개의 지표부분에서 100%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전국 의료기관 232 곳을 평가한 결과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은 암 진료지침 등에 따른 근거 중심의 치료환

경 조성, 전문 인력, 시설 구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의료진의 노력으로 호남권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폐암과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라고 밝혔다.

김갑태 암센터장(대장항문외과)은 "예수병원이 호남권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5년 연속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한 것은 예수병원의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암 치료를 잘하는 예수병원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제1회 마취 적정성평가서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회 마취적정성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마취 적정성평가는 심평원이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련 수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평가로, 종합병원 이상 34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

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등 전 부문에 걸쳐 고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점수 97.5점을 받았다. 병원 전체 평균은 82.2점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에서 '저소득 임산부를 위한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임산부를 위한 '나눔'

전북은행, 1000만원 상당 출산·육아용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유택)은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에서 '저소득 임산부를 위한 출산육아용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경제적 상황에서 인해 출산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임산부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전북은행지역사령관사단 10여명이 참여해 딸랑이, 치아발육기, 초점책, 사운드북, 오목이, 목욕장난감, 탁발이, 이유식스푼, 식판, 빨대컵 등 총 10종의 출산·육아용품이 담긴 선물상자를 직접 포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은 "임직원의 정성을 담은 출산·육아용품이 아기들의 건강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금융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